

2) 생생인터뷰



월요일 오전, 서울 강서구 G동 H아파트에서 이기호(73), 함광순(69) 씨 부부를 만났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며 여행과 등산을 취미로 즐긴다고 하는
부부는 밝은 표정 덕택인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어르신
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주시면?

이기호 : 상경계 교사로 근무하다가 62세에 은퇴해서 지금은
여유 있게,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명예기
자긴 해도 노후전문주간지에 기자 활동도 하면서
보냅니다. 사실 전에는 기자의 ‘기(記)’자도 몰랐
는데 일종의 도전이죠.

혹시 주택연금 가입 전에 따로 노후 준비 해두신 게 있으
셨나요?

이기호 : 노령연금 조금 받고, 개인연금으로 얼마 나오고,
애들이 주는 용돈도 있었죠.

함광순 : (남편이) (공립)학교 선생님을 하셔서...

이기호 : 공무원연금 나오는 건 일시금으로 받아서 애들
결혼 시킬 때 보태줬습니다.

주택연금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이기호 : 우연치 않게 알게 됐죠.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잖아요. 저게 뭐기에 그런가... 여기저기 물어서 주택금융공사에 찾아갔고, 상담하게 되었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아보셨네요. 주택연금이 눈길을 끈 특별한 이유라도 무엇이신가요?

이기호 : 안 그래도 애들이 생활이 부족하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가입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택연금이 좋은 게 우리가 내일 모레 잘못 될 수도, 10년 뒤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정리해서 남은 건 자식들에게 상속해줍니다. 만약 우리가 좀 오래 살아서 100세까지 살아서 노후 자금이 더 필요하더라도 (주택금융공사에서) 알아서 해주니 자식들에게는 아무 부담이 안 갑니다.

애들에게는 '이제 너희는 부모에게 건강만 하시라고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했죠.

주택연금 받으신 걸 보니까, 수시인출로 얼마를 빼시고 전후후박형을 선택해서 받으셨네요,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이기호 : 수시인출은 내가 빚이 있어서 그렇게 받았습시다. 은퇴하고 나서 사업 같은 걸 했거든요.

함광순 :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기호 : 군인, 은행원, 선생으로 은퇴하는 사람이 사회에서는 만만한 겁니다. '사업을 하자.', '무슨 예우를 해드리겠다.', 나는 크게 당하지 않았지만 그게 쌓이니까. 꽤 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할 때도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걸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빚이 있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은행 이자도 무시 못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데 망설임은 없으셨나요?

함광순 : 처음에는 좀 망설였죠. 기분이... 집을 없애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어떠세요? 아직도 내 집 같지 않으세요?

함광순 : 지금은 좋아요.

주택연금의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이기호 : 아무래도 매월 수입이 들어오니까 안정감이 제일 크죠. 그것도 하나도 미뤄지는일 없이 제 날짜에 또박또박 들어옵니다. 돈 보낼 때마다 문자도 온다니깐요.

함광순 : 우리가 고민 될 게 뭐 있어요.(웃음)

그래도 노후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이기호 : 사람은 욕심이 있으니까 후회가 없진 않습니다. 은퇴 할 때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버렸죠. 우리 땀 연금은 손해 본다는 소리가 많았습시다. 그땐 은행 이율도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계산하고 따지는 놈이 손해 본다고... 허허(웃음)

함광순 : 그런데 난 자식한테 집 없이 살게 하는게 싫더라고요. 적어도 전세는 해주고 싶어요.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많이 해주셨잖아요.

함광순 : 그래도 부모 마음이란 게 참 그래요.

이기호 : 내가 돈 몇 억만 있으면 애들에게 1억씩 주고 싶습니다. 사실 이걸 하면서도 애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젠 너희들에게 10원도 갈게 없구나. 너희들이 우릴 줄 지언정...' 참 미안했어요.

부모님 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가 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께 한 마디 하시면?

이기호 : 나는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노후 걱정이 안 되고 마음도 편해지니까요. 집 두 개 갖고 있으면 하나 처분하고서라도 하라고 말하고 있죠.

함광순 : 저는 요새 주변 사람이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내 경우에는 주택연금이란 게 도움이 됐는데 한번 해보라고 조언도 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것(주택연금)으로 덕을 봤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만큼 보탬이 되고 싶어요.